국립부경대-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 녹조 저감 및 수질개선 협약 체결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
입력 2025-07-07 12:36 수정 2025-07-07 12:36

부산·울산 저수지 녹조 대응 위한 기술·정보 협력 본격화

이태윤 센터장(왼쪽)과 손홍모 지사장이 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국립부경대)

국립부경대학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3일 국립부경대 해양공동연구관에서 '녹조 저감 및 수질개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오염과 녹조 확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기술과 자원, 인력 교류를 통해 지역 환경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녹조 제거 및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 적용 ▲울산·부산 지역 저수지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마련 ▲녹조 제거 기술 보유 환경기업 발굴 및 지원 ▲영농폐기물 관리 교육 및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 ▲그 외 수질 관리에 필요한 협력 사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태윤 센터장(국립부경대 환경·해양대학장)은 '부산시 도심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태양광 이용 수질정화 기술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광촉매 필터 기반의 수질정화 기술은 녹조를 효과적으로 제거한 실증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태윤 센터장은 "올해 센터에서도 녹조 제거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농어촌공사 저수지의 수질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손홍모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은 "관할 90개 저수지 중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저류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며 "수자원 관리 경험과 환경 기술을 결합해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물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녹조 문제와 수질개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 = 서진혁 기자 seojh613@viva100.com